

논란만 더 키운 '10억청자' 재감정

심사위원 가격편차 커 합의도출 실패

'바가지 매입' 진실 규명 검찰 손으로

강진청자박물관의 '고려청자 바가지 매입' 논란의 진실이 결국 검찰 수사에 의해 가려질 전망이다.

강진군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강진청자박물관이 매입한 청자 2점의 가격에 대해 재감정을 실시했으나 평가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 가격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재감정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윤영기 명지대 교수와 문화재 위원인 나선희 박사는 강진청자박물관이 10억원씩 주고 구입한 청자 2점의 가격은 현실을 고려할 때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강진청자박물관이 지난 2007년 10억원에 구입한 '청자상감연국모란문과형주자(이하 과형청자)'에 대해 윤 교수는 같은 유형의 청자를 타 박물관에서 7천만원에 매입한 것을 비춰볼 때 2억원 미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나 박사는 예술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3억~4억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9년 10억원에 구입한 '청자상감모란문정병(이하 정병청자)'의 시장 가격에 대해서도 윤 교수는 2억원 미만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강진청자박물관이 구입한 두 점의 청자가 손잡이 등 원형 보존에 문제가 있는데 예술성, 희소성 등을 감안해도 10억원의 가격을 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중앙대 문화재과학과 김익환 교수와 고 미술품 업계를 대표

하는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공찬훈

광 대표는 과형 청자에 대해 상당한 명품으로 평가된다며 10억원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정병 청자에 대해서도 두 평

가위원은 시장 가격이 공급과 수요의 상대성이 있어 정확한 가격 산출은 어렵지만 역사성과 예술성 등을 감안한다면 10억원의 가격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처럼 4명의 평가위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결국 청자 가격에 대한 객관적 합의점을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강진청자박물관 고가 매입 의혹의 진실은 검찰 수사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진청자박물관의 청자 고가 매입 의혹을 제기한 성윤환 의원실 관계자와 고미술협회 회원들이 재감정 평가위원들의 선정 등과 구입 과정에 대한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이날 재감정은 객관적 진실 규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네 분의 평가위원들이 감정한 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하면 두 점의 청자는 6~7억원이 되며 이날 재감정 내용 등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9일 오전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강진군 고려청자 '바가지 매입 논란' 관련 청자 유물 공개 재감정에서 감정위원들이 '청자상감연국모란문과형주자'(2007년 구입)를 감정하고 있다.

강력법 전자발찌 최장 30년간 착용

법무부, 기간 연장 추진

법무부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기간을 현행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력법의 강제 착용 한도를 최장 30년까지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주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엔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유괴범 등 강력범은 초범이라도 무조건 최소 2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는 재판부가 재벌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 등에 대해 10년 안에서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린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결과 재범률이 일반 성폭력사범(5.2%)보다 훨씬 낮은 0.21%에 그쳐 재범 예방에 효과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높아 이

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키로 했다.

전자발찌는 애초 성범죄자만 대상으로 했다가 지난 8월 미성년자 유괴 범까지 확대됐다. 법무부는 연내 살인·강도 등 강력범도 착용 대상이 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이 시행된 1년 동안(8월 말 현재) 착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모두 473명이며 이 중 최장 기간인 10년동안 착용해야 하는 범죄자는 3명이다.

/연합뉴스

국제갯벌연구소 전남 설립 추진

박준영 지사 밝혀

전남에 갯벌보존과 개발을 위한 국제갯벌연구소 설립이 추진된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9일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개최된 '제1회 한-와렌해 3국 협력체 간 공동워크숍'에 앞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갯벌을 가진 전남에 국제갯벌연구소를 설립해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갯벌보존과 활용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에는 전국 갯벌의

40%가 집중돼 있을 정도로 많은 갯벌이 있고, 여기에 갯벌을 훼손한 경험과 보존한 경험, 또한 갯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다"면서 "갯벌연구소를 통해 다른 나라들과 이러한 경험을 함께 공유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와 전남도 주관으로 이날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1회 한-와렌해 3국 협력체 간 공동워크숍'에 앞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갯벌을 가진 전남에 국제갯벌연구소를 설립해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갯벌보존과 활용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에는 전국 갯벌의

와데에는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등 3개국에 걸쳐 분포된 해안으로 갯벌면적이 우리나라 갯벌면적(2천550㎢)의 약 3배(7천500㎢)에 달한다.

과거 50년간 간척 등으로 일부 소실됐으나, 3개국이 갯벌 보전을 위한 공동관리체계를 확립해 지속적인 갯벌 보전과 복원을 통해 체류형 생태관광지로 개발했다.

현재는 생태관광객 연 1천만 명, 관광수입 연 10조 원 및 3만7천 9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염원 설치 신고 위반업체 제재 안해

영산강환경청 '봐주기 의혹'

28개 사업장 가운데 17곳 적발 눈감아 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비점(非點)오염원 설치 신고 제도를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도 제재를 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비점오염원은 오염물질의 유출경로가 명확한 점(點)오염원과 달리 도로나 농지, 공사장, 양식장 등과 같이 불특정 장소에서 유발되는 오염원을 말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선택(자유선진당) 의원은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

고도 처분을 면제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비점 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는 강우 시 수질을 오염시키는 비점오염 배출원을 관리하고 오염물질을 줄이려고 도입된 것으로, 지난 2006년 4월부터는 1만㎡ 이상 사업자 중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도 신고 대상으로 확대됐다.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日만정

- 김종우



애들 장난같은 韓美공조에 웃다

최대통령 오늘 출국 동남아 3개국 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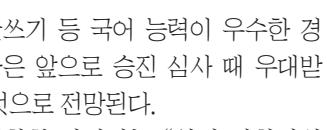


이명박 대통령이 20일부터 25일 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20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을 방문하고 베트남대학생들과의 만남을 가진 뒤 21일에는 응웬 맹 씨엣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농특 마이 공산당 서기장과 응웬 편 중총리 등과 면담한다.

이 대통령은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고위급 전략대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합의할 예정이다. 영어는 토의 등 시험 결과에 따라 최고 0.5점을 준다.

국어 우수 경찰관 승진 심사때 우대



글쓰기 등 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찰관은 앞으로 승진 심사 때 우대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관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국어 능력과 관련된 공인 시험 성적을 제출하면 인사 과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19일 밝혔다.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국가공인 국어 시험은 KBS가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과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의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국어능력평가 협회의 실용글쓰기검정 등이다. 경찰은 이를 시험 성적을 제출하면 수급에 따라 인사 과제 때 2점 만점의 '가점' 항목에서 최대 0.3점을 줄 계획이다. 영어는 토의 등 시험 결과에 따라 최고 0.5점을 준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자 클럽

T. 011-641-0925, (062) 515-4985

▶ 가든식당(월동신국립공원입구) 대지면적 7,665㎡

매매가 3.3㎡ 당 32만원

- 신당, 체육시설, 농장, 단립주택, 숙박업

- 모든 시설 허가 필. 현 성업 중

▶ 식당(당양리조트 인근) 대 881㎡ / 건 155㎡ 매매가 1억5천

▶ 고시텔(전화문제 유통업체원) 대 282㎡ / 건 580㎡

- 52㎡(월당 월 일대로 23만원)

- 5평 준공 5층, 최신시설, 풀옵션 매매가 8억 5천

▶ 상가주택(오거동 대단지 아파트입구) 대 496㎡ / 건 1487㎡(6층)

- 매매가 17억

▶ 상가건물(용봉동) 대 273㎡ / 건 466㎡(3층) - 주차면리

- 매매가 4억 1천

▶ 대지

● 대지 764㎡(월동신국립공원입구) 대지면적 7,665㎡

매매가 3.3㎡ 당 32만원

- 신당, 체육시설, 농장, 단립주택, 숙박업

- 모든 시설 허가 필. 현 성업 중

▶ 식당(당양리조트 인근) 대 881㎡ / 건 155㎡ 매매가 1억5천

▶ 고시텔(전화문제 유통업체원) 대 282㎡ / 건 580㎡

- 52㎡(월당 월 일대로 23만원)

- 5평 준공 5층, 최신시설, 풀옵션 매매가 8억 5천

▶ 상가주택(오거동 대단지 아파트입구) 대 496㎡ / 건 1487㎡(6층)

- 매매가 17억

▶ 상가건물(용봉동) 대 273㎡ / 건 466㎡(3층) - 주차면리

- 매매가 4억 1천

▶ 대지

● 대지 764㎡(월동신국립공원입구) 대지면적 7,665㎡

매매가 3.3㎡ 당 32만원

- 신당, 체육시설, 농장, 단립주택, 숙박업

- 모든 시설 허가 필. 현 성업 중

▶ 식당(당양리조트 인근) 대 881㎡ / 건 155㎡ 매매가 1억5천

▶ 고시텔(전화문제 유통업체원) 대 282㎡ / 건 580㎡

- 52㎡(월당 월 일대로 23만원)

- 5평 준공 5층, 최신시설, 풀옵션 매매가 8억 5천

▶ 상가주택(오거동 대단지 아파트입구) 대 496㎡ / 건 1487㎡(6층)

- 매매가 17억

▶ 상가건물(용봉동) 대 273㎡ / 건 466㎡(3층) - 주차면리

- 매매가 4억 1천

▶ 대지

● 대지 764㎡(월동신국립공원입구) 대지면적 7,665㎡</